

# Modes of Thought에 나타난 Alfred North Whitehead의 사고 방법

Alfred North Whitehead's Way of Thinking in "Modes of Thought"

민 병 일

---

부경대학교

## Content

abstract

### I. 서론

### II. 본론

#### II-1. 사고의 방법의 종류

##### II-1-1. 창조적 충동

##### II-1-2. 활동

##### II-1-3. 자연과 생명

### III. 결론

참고문헌

## 민 병 일

Min, Byung-Il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 홍익대산업미술대학원

일본 후쿠오카공대 연구과정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부산광역시 문화상 ·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

미술전문위원 · 새천년맞이 추진위원

「부산스포츠크」 신문 편집위원

국제기능경기대회 부산광역시부위원장

K.I.D.P 디자인혁신지원사업 심의위원장

MBC 문화대상 심사위원

South Australia 대학교 교환교수

현 ; 부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 대학원 교수

한국비주얼디자인학회 회장

## 논문요약

Alfred North whitehead의 철학적 태도는 현재의 우리 사고 속에 들어오는 모든 관념idea의 적용, 영역에 대한 이해를 확대(확장)하려는 시도를 나타내 보인다. 또한 시원적인primitive 관념들이나 시원적인 명제들에 만족하지 않는다. Modes of Thought(열린사고)에서 Alfred North whitehead는 첫째, 철학에서 창조적 활동 즉 창조성은 개개인의 현실적 존재(독)Dasein자들의 통일성에 기인한 공통의 특성일 뿐만아니라 그것의 개별화는 개별적인 현실적존재자로 본다. 둘째, 이와 같은 창조적인 행위의 한 가운데서 학설(철학)이 갖는 성격을 구성요건이 결정되어야 한다. 철학은 시와 유사하며 수학적인 패턴(그림)과 조화를 이룬다. 이 양자 모두에는 낱말의 직접적 의미를 넘어서 형식form과 관련되어진다. 셋째, Alfred North Whitehead는 유기체organism철학이라는 일관된 개념으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열린사고와 철학은 유기체 철학의 핵심사상과 관점을 비교적 일상적이고도 비체계적인 술어로 기술하고 있다. 자신의(A. N. Whitehead) 형이상학metaphysics을 소개하기 위한 내용이며 형이상학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전문적 술어나 독특한 개념을 접근시켜 놓았다. 또한 그의 체계적인 사유thinking의 뿌리가 맞닿아있어 수용적인 다양성의 측면과 구별되어지고, 능동적 통일화의 측면을 중시하며 감성적 지각과 대적시켰다. 이는 형이상학 체계를 단순히 사변적speculative method(사변적방법)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이에게 현실과 경험적 의미empirical meaning를 부여시켜준다.

## abstract

Alfred North Whitehead tries to extend the applications of all the ideas in our thinking and the understanding of their realm. He is not satisfied with primitive ideas and propositions. In Modes of Thought, he argues the following: First, creative activities i.e., creativity are regarded not only as common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unity of each individual Dasein but also as individual Dasein when individualized. Second, in doing such activities, one should determine what elements constitute the characteristics of theory(philosophy). Philosophy is similar to poetry and in harmony with mathematical patterns(figures): Both poetry and mathematical patterns are related to forms which go beyond verbatim meanings of words. Third, his theory is characterized in terms of coherent concepts called organism philosophy. His open thinking and philosophy describe the core thought and viewpoint of organism philosophy in everyday and unsystematic words. He introduces his own metaphysics and explains philosophical jargons and idiosyncratic concepts that constitute his metaphysical system. He endows those who speculatively conceive metaphysical system with realities and empirical meanings because the roots of his systematic thinking are consistent with each other.

Keyword

whitehead

Modes of thought

philosophy

## I. 서론

화이트헤드 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sup>1)</sup>는 완전한 사실 complete fact, 실재의 본질적인 성격 the nature of reality에 관한 형이상학적 이해를 추구하였다. 그는 <열린 사고 Modes of Thought>에서 합리적인 사고와 문명화된 양태樣態들이 결실을 낳을 수 있는 한 미래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창조적인 행위의 장 field 가운데서 철학이 갖는 특수한 사고에 답하려면, 현실적 세계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과정은 현실존재의 생성이라는 것, 따라서 현실적 존재는 피조물이며 현실적 계기라고도 불렀다.

그의 철학적 태도는 현재의 우리 사고 속에 들어오는 모든 관념의 적용 영역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려는 결연한 시도를 나타내 보인다. 사고의 방법에 대해 화이트헤드는 몇 가지의 요소를 나열하여 제시하면서 철학과 철학적 사고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철학적인 시도는 사고의 언어적 표현에 들어있는 모든 낱말과 구절을 취하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묻는다. 그것은 양식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답을 알고 있으리라는 일상적인 전제에 만족해하지 않으며, 또한 시원적인 primitive 관념들이나 시원적인 명제들에 만족하지 않는 철학의 자세를 들고 있다.

(1) 영국의 수학자·철학자, 런던대학 수학교수로 있다가 1924년 이래 미국의 하버드 Harvard 대학 철학교수, 1938년 명예교수가 되었다. 데카르트에 견줄 만한 20세기의 철학자. 그라스만·라이프니츠·부울의 영향을 받아 기호논리학을 연구했다. 러셀과 공동연구로 <Principia Mathematica>를 저술하여 기호논리학과 수학기초론에 있어서 논리주의를 완성시켰다. 그는 무한한 우주를 유한한 언어적 표현으로 파악하여 경험의 애매성을 판별하는 것을 철학적 과제로 삼았다. 재래의 물물·심心の 2원론에 반대하고 자연과 인간과의 대립을 없애려 하였다. 우리들의 모든 경험적 요소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일반적 관념(그는 이것을 형이상학적 category라 불렀다)의 논리적 필연적 체계를 형이상학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경험적 측면과 합리적 측면과의 융합을 시도하고 자연과학적 제 사실, 제 이론도 다 이안에 포함하는 형이상학을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저서 <과정과 실재>에서 1)형이상학적 방법론 2)47개의 형이상학적 카테고리 3)이 카테고리의 이루어져서 서술적 체계로 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그 중 현실적 실체 actual entity 현실적 기회 actual occasion라 불리우는 카테고리 4)파악 prehension 이라는 개념이 행하고 있는 역할, 영원적 대상 eternal object이라는 카테고리 등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세계를 구성하는 실체를 그 자신 속성을 가지며 자신의 존재가 자신 이외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으나 현대 장의 물리학에서는 천체·물체·분자 등을 시공에 있어서의 장의 여러 상항 또는 장의 초점적 영역이라 생각한다. 시공의 영역에는 무수한 장이 중첩重疊하여 있으므로 자기충족적인 실체는 부정된다. 그는 이 세계구성의 궁극적 실재물을 실제 대신 현실적 실체 또는 현실적 기회라 부른다. 그는 현실적 실체에 대해서 가능성 실체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가능계可能界의 대상을 영원적 대상이라 불렀다. 이러한 카테고리의 정합적整合的 체계로부터 그는 자연·인간·사회·종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서술했다. [주저] A Treatise on Universal Algebra, 1898. The Principia Mathematica, vol. I~III(B. Russell과 공저), 1910~13.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natural Knowledge, 1919. The Concept of Nature, 1920.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1926. Religion in the Making, 1926. Process and Reality, 1929. Adventures of Ideas, 1933

## II. 본론

### II-1. 사고의 방법의 종류

화이트헤드는 사고의 방법에서 크게 창조적 충동과 활동, 그리고 자연과 생명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관념들을 제시하였다.

### II-1-1. 창조적 충동

창조적 충동에 있어서의 중요성의 관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화이트헤드는 모든 체계적인 사고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한 모든 체계적 사고는 현학적인 색조를 띠고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우리가 관념이나 경험, 암시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라고 하는 변명과 함께 그런 것들을 제쳐놓아 버린다. 또한 체계<sup>2)</sup>란 중요한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경험 속으로 밀려들어오는 갖가지 사고를 조작하고 이용하고 비판하는 데에 필요하다. 체계화란 과학의 전문분야로부터 파생되는 방법들을 동원하여 일반성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것은 주요 관념들의 폐쇄된 군<sup>3)</sup>을 전제로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철학은 광범하면서도 충분한 일반성을 지닌 관념들을 영입한다. 이와 같은 정신의 체계야말로 문명의 본질을 깨닫는다. 모든 경험 밑에서는 불가피하게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비되는 두 관념이 있다. 그 하나는 중요성의 관념, 중요성에 대한 감각<sup>sense</sup>, 중요성이라는 전제이다. 다른 하나는 사태<sup>matter-of-fact</sup>의 관념이다. 순수한 사태는 결코 회피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회피될 수 없다고 하는 사태의 특성 때문에 중요성은 중요한 것이 된다. 우리는 중요성에 대한 감각 때문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집중할 때, 우리 사태에 집중하게 된다. 완고하게 사태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감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현대철학의 일차적인 과제는 중요성과 사태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사태는 단순한 존재<sup>mere existence</sup>의 관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관념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것은 다양한 유형의 존재들-예컨대 환상적인 존재나 현실적인 존재 또는 그 밖의 다른 많은 유형의 존재들-이라는 하위 관념들로 분화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존재의 관념은 존재의 환경과 존재의 유형에 대한 관념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존재의 사례들은 그들 자신과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그들 자신을 넘어, 다른 존재들의 관념을 수반한다. 이러한 환경의 관념은 정도<sup>more or less</sup>라는 관념과 다수성<sup>multiplicity</sup>이라는 관념을 끌어들이는다.

중요성의 관념은 또한 중요성의 등급 및 중요성의 유형과 관계가 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정도라는 관념과 만나게 된다. 게다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허공 속에 중요성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중요성은 우리를 사태로 돌아가게 한다. 그러나 사태의 다수성 때문에 유한한 지성으로서의 중요성을 취급함에 있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선택은 저것보다도 이것이라는 관념

(2)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조직된 지식의 통일적 전체, 그러므로 지식의 단순한 집합·축척이 아니라 전체는 부분과 또 부분은 부분끼리 서로 논리적인 관계를 갖는 조직적 구성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이 통일은 유기체와는 달리 논리적·방법적 통일이지만 단순한 형식적·방법적 통일 따라서 지식의 분류나 사물의 일반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당하게 통일적조직을 이루는 동적원리, 즉 지식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원리를 포함해야 한다. 세계철학대사전, 고려출판사, 1992, p.1077

(3)수학에서 요소 a,b,c...가 주어져서 그 들을 결합하는 법칙을 정하려 할 때 각 요소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그 요소의 모임은 그 결합에 관하여 군을 이룬다고 한다. 즉 1)임의의 둘을 결합한 결과가 그 모임의 제3 요소와 같으며(ab=c), 2)결합은 조합의 법칙<sup>associative law</sup>에 따르고(ab)(c)=(a)(bc), 3)다른 임의의 요소와 결합해도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는 동일요소<sup>identical element</sup>가 이 모임 속에 한개만 있으며(ae=ea=c), 4)각 요소에 대해서 이와 결합하여 동일 원소를 만드는 역요소<sup>inverse element</sup>가 각각 하나씩 있다. (aa' =aa' =e). 정수전체, 정의 유리수 전체는 가법·승법에 관하여 각각 군을 이룬다. 요소의 수가 무한일 때에는 무한군, 유한일 때에는 유한군이 된다. 요소를 어떤 수속<sup>operation</sup>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한 수속이 연속적이면 연속군, 연속이 아니면 비연속군이 된다. 예를 들면 운동은 연속군을 이룬다. 위의 세 가지 조건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네번 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요소의 모임을 가환군<sup>可換群</sup>, 또는 아벨<sup>Abel</sup>군을 이룬다고 한다. 즉 4)결합에 관하여 교환법칙이 성립한다.(ab=ba). 정수 전체의 모임은 가법에 관하여 가환군을 이룬다. 한편 정의 유리수 전체는 승법에 관하여 가환군을 이룬다. 다음에 1, 2, 3의 3개 숫자를 늘어놓는 데는 다음 6개의 배열이 가능하다. 1) 1 2 3, 2) 2 3 1, 3) 3 1 2, 4) 2 1 3, 5) 1 3 2, 6) 3 2 1. 이 표의 제 i 번째의 배열의 제R번째에 있는 숫자를  $\alpha(R)$ 로 표시하면  $\alpha$ 를 1, 2, 3의 치환<sup>置換</sup>이라고 한다. 몇개 요소의 치환 전체의 모임은 치환의 승법에 관하여 군을 이루며 군을 논하는 군론<sup>群論</sup>group theory은 수학의 기초적 부분이다.

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적인 사유는 선택의 결과인 것이며, 선택은 그런 자유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중요성의 관념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중요성, 선택, 지적인 자유는 하나로 결부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가 사태와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단순한 사태라는 관념은 외적인 작용의 필연성에 자신을 조정해 나가는 단순한 존재의 습성이 사고 속에 출현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모든 유형의 사물들을 사고 속에 출현시킨 것으로 그것은 우리 자신과 모든 유형의 사물들을 끌어안고 있는 자연의 끊임없는 움직임에 대한 인지 recognition인 것이다. 그것의 기원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과정 속에 들어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간주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사실 파악은 사고의 한쪽 극단으로 뒤섞여 상호 작용하는 사물들의 단순한 동요 agitation라는 개념이다. 중요성의 관념도 이에 못지 않게 문명화된 사고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것은 「공적인 표현으로 이어지는 강렬한 개인적 느낌을 수반하고 있는 관심interest」이라는 구절로 불충분하게 정의될 수 있다.

사태는, 궁극적인 실재를 가장하여 나타나는 순수한 형식적 관계에다 사고를 제한할 때 얻어지는 하나의 추상이며 이것은 과학이 완벽한 지평에 도달하게 될 때 미분방정식에 대한 연구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이유이다.

중요성이란, 느껴진 사물들의 우주에다 하나의 전망을 부여하는 느낌의 한 측면으로, 보다 강한 자의식 속에서 그 관념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물들의 유효성을 그들이 불러일으키는 관심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 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무시하기도 하고 주의를 집중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주목하여 강조함이 없이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 나간다.

창조성creativity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임무는 다자를 일

자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다자를 일자로 변형시킨다는 것은 이접적인 다수성(다자)을 대비를 통해 합생적 통일(연접적 일자)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성론에서 일자속에는 펼쳐진explicatio 다수가 있다. 또한 접혀진것 complicatio과 펼쳐진 것에 대한 이성론은 인과적 목적성과 묘사속에서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오성개념을 심화시킨다. 접혀있는 일자에게는 ‘할수 있음posset’이 성립된다.<sup>(4)</sup>

여기서 창조성과 사물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창조라고 하면, 새로움만 생각하기 쉽다. 물론 창조성은 새로움의 원리이다. 그러나 새롭다는 의미와 함께 만든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창조라는 말은 새롭게 만든다는 것으로, 창조의 의미도 새로움만 생각하면 합생과 이행의 두 과정 중에서 합생 과정에만 창조성이 나타난다.

창조성은 삼중적인 임무를 갖고 있으며 진정한 사물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삼중적인 임무를 갖고 있다.

창조성은 사물에게 삼중적 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창조해 가는 순수활동성이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사물이 여건도 되고 주체도 되며 초월체도 된다는 것-삼중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창조성의 임무에 따라 자기 자신을 창조해 가는 것이다.

존재범주 중에서 진정한 사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삼중적 성격을 모두 갖춘 현실적 존재자의 결합체이다. 그렇지만 화이트헤드가 사물의 의미를 넓게 사용할 때는 존재자와 있는 것을 포함해서 사물이라고 사용할 때도 있다. 그러나 보통 사물이라고 말할 때는 진정한 사물을 말하는 것이다.

(4) 민병일, 박학한무지, 한미서관, 1999, p.292

창조적 충동에서 표현은 중요성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은 차이를 낳게 마련인 주변 환경 속에 널리 퍼져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은 구별되는 것이다. 중요성은 우주와의 관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원론적인 것이다. 유한한 개체적인 계기occasion에 한정되는 중요성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못 된다. 이런 다양한 의미에서, 중요성은 무한자가 유한자에 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그러한 표현은 유한한 계기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 주변 환경에다 자신을 각인시키는 유한자의 활동이다. 따라서 표현은 유한자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유한자가 자신 이외의 무수히 많은 유한자들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중요성과 표현은 공동으로 우주의 일원론적 측면과 우주의 다원론적 특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성은 일자—者로서의 세계로부터 다자多者로서의 세계로 나아간다. 이에 반해 표현은 다자로서의 세계가 일자로서의 세계에게 주는 선물이다.

또한 표현은 표현자의 경험에 최초로 영입된 어떤 것을 주변환경에 유포시키는 것이나, 거기에 그 어떤 의식적인 결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단지 유포시키려는 충동이 들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충동은 동물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가장 단순한 특성들 가운데 하나이며 그것은 우리가 외부 세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증거이다.

언어는 사고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언어가 사고이며 사고는 언어라고까지 주장되어 왔다. 따라서 하나의 문장은 곧 사고인 셈이다. 이러한 학설을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학문적인 저술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저술에서는 이런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미철학의 연구대상에서 예술작품이란 언어철학에 있어서 의미meaning에 접근한다. 물론 여기에는 사전적 해역<sup>6)</sup>과 학술적 해역<sup>6)</sup>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언어철학의 명료성으로 모든 철학적 문제를 추구하고 학술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비트겐슈타인 Wittgenstein Ludwig 1889~1951이다. 그는 철학의 본질자체를 수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전기의 언어관인 그림이론에서는 언어는 단순하고 정확하며 고정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이는 언어를 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후기의 언어관인 쓰임 이론에서는 언어를 복잡하고 애매하고 유연한 것으로 동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그의 철학의 출발점과 철학이 지니는 철학사적 위상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그에게서 언어, 즉 '이론이 아닌 활동으로서의 철학에서 언어'가 문제제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표현에 있어서 인간이 향유하고 표현하는 중추적 활동은 중요성에 있어서 자연의 다양한 기증들을 역전 시켜 놓은 모습을 띠고 나타난다. 실현되어 있지 않은 가능성 possibility를 개념적으로 마음속에 품는다는 것이 인간의 정신성에 있어서는 주요요소가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탈적인 새로움이 도입되어 때로는 축복 받고 때로는 지탄 받으며 또 때로는 문자 그대로 판권에 의해 특허를 얻게 되거나 보호받게 된다. 인류의 정의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인류라고 하는 동물류에서는 중추적인 활동이 새로움과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개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양면적인 것이다. 신체적 표현들의 총체적인 다양성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새로움이 있으며 이와 같은 새로움이 정합적인 표현으로 환원되는 데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반면, 표현되어 있지 않은 가능성들을 마음속에 품는 가운데 도입되는 느낌의 새로움이 있다. 이는 인간이 갖는 개념적 느낌conceptual feeling이 확대된 것으로, 이러한 개념적 느낌은 있을 수 있는 것과 있었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감각sense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그것은 선택지를 마음속에 품는 것이며, 최고의 단계에서 이상理想을 마

음속에 품는 것으로, 앞서 말한 중요성에 대한 감각을 강조한다. 또한 도덕에 관한 감각, 종교에 대한 신비스러운 감각, 섬세한 조정이라 할 수 있는 미에 대한 감각, 오성적이라 할 수 있는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필연성에 대한 감각, 의식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분별되는 각 요소에 대한 감각 등이 그것이다.

느낌은 그 본성상 표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느낌들의 표현은 동물의 여러 행동에 대한 단순한 기술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낸다. 역사는 인류만이 지니고 있는 느낌들의 표현에 대한 기록인 것이다.

창조적 충동에서 이해라는 관념은 인간의 지성을 분석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세 가지 관념 가운데 마지막 하나이다. 이해는 우리가 밝혀 낼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언제나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해된 사물로부터 추상된 순수한 지성이라는 관념은 하나의 신화이기 때문이다.

(5) 말, 행위, 기호, 그림 등에 의해 표현되어 사람이 이해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으로서 「뜻」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말이다. sense 특히 어떤 어구가 지닌 특별한 뜻이다. significance 표면에 분명히 나타나는 뜻에 대해 어구, 기호, 행위 등의 배후에 숨겨진 함축성, 주요성. 동아프림영한사전, 동아출판사편집국, 동아출판사, 1988, p.1350

(6) 1)표현적의미... 한 표현이 무엇인가 그 말하는 편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을 때 이 표현이 성취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감탄문, 명령문에 있어서의 정서적, 의지적인 의미이다. 여기에는 다음 2)의 의미를 갖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2)인식적의미... 한 표현이 어떤 무엇을 주장하며 따라서 그것이 진실(참)이나 허위(거짓)일 때 그 표현이 성취하는 기능을 말한다. 보통 언명에 있어 사용하는 명제는 모두 이런 의미를 갖는다. 더우기 2)에서는 다음의 두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a)명제의 진리치가 그 명제속에 포함되고 있는 말의 의미와 그 명제에 의해서 지시될 수 있는 사실과의 양자에 의존되어 있다면 그 명제가 갖는 의미는 <사실적>인 것이다. 이것은 종합적 또는 진료적 의미라고도 한다. b)이에 대하여 명제의 진리치가 전혀 그 의미론적 의미에만 의존한다고 하면 그 명제가 갖는 의미는 <논리적>인 것이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 표현적인 의미 밖에는 갖지 않는 명제를 위진술pseudo-statement이라고 말한다. 세계철학대사전, 고려출판사, 1992, p.867

그러므로 완벽한 이해는 총체적 우주에 대한 완전한 파악이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파악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이해는 결코 정신의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 는 점을 강조한다. 그것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통찰의 과정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해의 이런 두 측면이 우리의 사고 양태에 개입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지성의 임무가 완수되었다고 느낄 때 보다 우리 자신이 통찰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더 완전한 자아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이해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는가? 우선 이해에는 언제나 합성composition의 관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관념은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 첫째 방식은 이해되는 사물이 합성적인 것일 경우, 그것에 대한 이해는 그것의 요소들과 관련하여 합성적인 것일 경우, 그 사물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 그 요소들이 결합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합성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파악 양식은 그 사물이 어째서 지금과 같은 본성의 것이 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해준다.

이해의 둘째 방식은 그 사물을 분석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통일체로서 취급하고,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의 능력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첫째 방식은 내적인 이해라 할 수 있겠고, 둘째 방식은 외적인 이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수학자들에게서도 단편적 폭을 지닌 이해가 존재한다. 이런 단편적인 이해들 간의 또 단편적인 관계들이 있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관계의 요소들도 또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런 지성의 단편들은 서로 계승한다. 그들은 하나의 거대하고 자명한 조정물coordination로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기껏해야, 최근까지 주목되어 온 세부사실들details에 대한 모호한 기억이 있을 뿐이다.

화이트헤드는 수적인 관계와 양적인 관계들을 완전히 중

속적인 것으로 하고 그런 관계들의 패턴에서 보다 큰 즐거움을 느끼며 자명한 합성물들의 범위 및 특성과 관련하여 자명성evidence<sup>(7)</sup>이 취할 수 있는 지극히 다양한 특성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개인적인 세부사실들을 거론하고 있다. 또한 완결의 느낌은 우리의 이해의 자명성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바로 자명성이 이해인 것이다.

지성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늘 붙어 다니기도 하는 통찰의 느낌은 이해의 성장과 관계가 있다. 성장에 대한 그 어떤 느낌도 없이 완결성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에 있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완결성에 대한 그와 같은 느낌은 저편의 사물들과의 탐구되어 있지 않은 관계들에 대한 어렴풋한 느낌을 수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완결성에 대한 어떠한 느낌도 없이 통찰을 느낀다는 것 역시 이해에 있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통찰 그 자체가 의미에 있어 결함을 지닌 것으로, 그것에는 성취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철학은 사물들의 본성에 관한 기본적인 명증성을 드러내려는 시도이다. 모든 이해는 바로 이러한 명증성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 올바르게 동사화 된 철학은 모든 전제premise가 전제presupposition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경험을 동원한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내용을 다루기 쉬운 것으로 바꾸어 놓고 세부사실들에다 의미를 부가한다. 그것은 이접disjunction과 연접conjunction, 무모순無矛盾과 모순을 드러내 보여 준다. 철학은 특수한 사고 양태들을 지배하는 추상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철학은 증명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증명은 추상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철학은 자명한 것이든가 아니면 철학이 아니든가 이다. 철학적 논의는 모두 자명성을 끌어내는 시도여야 한다. 물론 그와 같은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에 있어 모든 추론은 인간의 모든 시도에 늘 붙어 다니는 불완전성의 징표

인 것이다. 추론은 우리에게 있어 가능한 그런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되고 있다. 증명은 우리의 불완전한 자명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통일성에 대한 모든 기술에는 다수의 현실태가 전제될 것이다. 그리고 다자the many에 대한 그 어떤 기술도 중요성과 목적을 가져다주는 통일성의 관념을 필요로 할 것이다. 사물들의 개체성 때문에, 실현된 유한자들 간에는 충돌이 있게 된다. 따라서 다자의 일자the one로의 통합이나 일자로부터 다자로의 중요성의 전이에는 무질서의 관념, 충돌의 관념, 좌절의 관념이 수반된다. 이들은 우주의 기본적인 측면들로, 존재의 여러 측면에 마음을 쓰는 상식이 어떤 정합적인 이해 속에서 명료화될 수 있도록 철학에 넘겨주는 것이다. 철학이 이 딜레마의 어느 한 쪽을 간단하게 처리해 버린다면 이는 그 자신의 과제를 회피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통찰력을 키워 나갈 수는 있다.

완전한 이해가 이루어졌다면 그 모든 특별 항목들은 이미 밝혀져 있는 것에 속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단지 이미 알려진 것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동어반복tautology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어반복은 무한자無限者의 지성적 유희이다.

논리적 이해의 특징적인 태도는 세부사실에서 출발하여, 성취된 구성물로 나아간다는 데에 있다. 논리적인 향유는 다자로부터 일자로 이행한다. 다자의 특성들은 그 구성물의 통일성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7) 증명할 필요없이 정신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진리를 말하며 지적 직관의 대상이자 지식의 일차적인 요소인 '명료하고 분명한 관념들'의 특성이다. 그래서 자명성은 확실성의 가장 완전한 표준이다. 참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자명하거나 일차적 자명성으로 부터 연역된다. 라이프니츠는 자명성에 대해 기만적일 수 있으며 그것은 진리에 대한 너무 주관적 표준으로 비판했다. 증명되고 계산된 진리아말로 더욱 객관적이며 확실한 진리로 보았다. 경험주의 입장에서 볼때 자명성은 지적인 것보다 감각적인 것이며 지식의 일차적 요소는 명료하고 분명한 관념이 아니라 감각적 인상이다.

또한 논리에 대한 이해는 추상적인 통일성을 허용하는 것으로서의 추상된 세부사실들에 대한 향유이다. 이 향유가 진척되어감에 따라, 구조물의 통일성이 드러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우주에 있어서의 하나의 가능성, 즉 그 본성에 있어 추상적인 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것의 통로를 간직하고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논리는 근원적인 여러 관점에서 출발하여 이들을 결합시켜준다.

미적인 향유는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달린다. 건축물의 아름다움이나 그림이 주는 즐거움이 문장의 정교한 조화에 압도될 때가 종종 있다.

이제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끌어낼 수 있겠다. 세부사실을 떠나서, 또 체계를 떠나서 하나의 철학적 전망philosophic outlook은 사고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일련의 관념들과 우리가 배경속으로 밀어 넣어 무시해 버리는 또다른 일련의 관념들은 우리의 희망과 공포 및 우리의 행위 조절을 지배한다. 우리는 사고할 때 살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 관념들을 연관시켜 검토하는 일은 특정의 전문적인 연구 이상의 것이 된다. 연관된 철학적 관념들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유형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 II-1-2. 활 동

온갖 유형의 존재들로부터 뽑아낸 작금의 추상개념들의 의미에 관한 이와 같은 문제는 지식인들에게 맡겨져 있는 형이상학적 난제에 불과한 것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흔히 있는 사태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인 판단들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는 실천적인 양식practical good sense에 속한 문제이다. 우리의 위험은, 어떤 한 군의 사건들 속에 연루되어 있는 우주에 대한 하나의 어떤 전망에 타당한 관념들

을 취하고는, 전망에 있어 그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사건들에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있다. 관념들의 수정이 필요한 까닭은 전망에 있어서의 이런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활동이라는 관념에서 화이트헤드는 전망을 논하기에 앞서 현실태actuality의 유형과 순수가능태pure potentiality의 유형을 이렇게 말한다.

이들 두 유형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즉, 현실태는 가능태를 예증하며, 가능태는 사실에 있어서건 개념에 있어서건간에 현실태를 규정한다. 형상들은 본질적으로 그들 밖에 있는 것들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넘어서는 것들과 어떠한 관계도 지니고 있지 않은 [절대적 실재성]을 형상들에다 부여하는 것은 환상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형상들의 영역은 가능태의 영역이며, 가능태라는 이 관념은 외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생존과 운동에 관련되어 있으며 포섭과 배제에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희망, 공포,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 보다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욕구와 관련되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형상을 실현하고 있으면서도 형상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현실태의 전개와 관련되어지고 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모든 것은 그 나름대로 실재적인 어떤 것이다. 누군가가 어떤 것을 비실재적인 것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단지 그가 그 [어떤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실재의 유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재한다는 것이 자존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가 무수히 많은 그런 유형들을 모두 열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극단적인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유형에서 출발할 수 있고, 또 이 두 유형은 그 상호연관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그 밖의 다른 유형들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유형은 인간의 경험에 있어 여러 존재 유형들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런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불변하는 형상(형식)의 단순한 존재가 변화하는 역사적인 세계 창조에로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창조의 형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통일성이 우주의 다수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무한이 유한한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것들이 제각기 그 자신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선행하는 자신의 과거와 후속하는 미래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속에는 세 가지 요소,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들어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직접적인 유한한 존재는 그 자신의 전망인 무한한 연장성을 확고하게 거머쥐고 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또한 우리는 단순한 사태가 그 자신이 실현시키고 있는 현실태를 넘어서는 가능태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역사적 사실-의 특성 자체는 그것이 배제했던 가능태들과 다양한 유형의 관련을 맺고 있다. 현재의 사실 속에는 부분적으로 재생되고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버린 과거의 다양한 특성들이 들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공유되고 부분적으로 배제되는, 현재 속에 공존하고 있는 여러 특성들이 들어 있다. 또한 그 속에는 부분적으로 예비 되고 부분적으로 배제되는, 미래의 여러 가능성들이 있다. 현재의 사실을 논하면서, 과거와 현재 및 미래와의 관련을 도외시하는 동시에 창조의 형식들의 보존이나 파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우주로부터 그 중요한 본질을 박탈하는 처사가 된다. 전망이 없는 곳에 사소성triviality이 있게 되는 것이다.

과정이라는 관념을 이해할 때는 여건data, 형식form, 변이transition, 결과issue등이 서로 얽혀 있는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과정에는 리듬이 있다. 이것은 창

조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의 자연적 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연의 박동pulsation을 산출토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본질로 하고 있는 무한한 우주 가운데서 유한한 단위 사실들을 어렵듯이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과정이 현실태에 기본적인 것이라면 각각의 궁극적인 개체적 사실들은 과정으로 기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화이트헤드는「존재」(그 어떤 의미에 있어서이건)란 과정으로부터 유리될 수 없다고 하였다.

과정과 존재라는 관념은 서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논제로부터 연역되는 한가지 사실은 과정 속에 있는 점point이라는 관념이 그릇된 관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점이라는 개념은 과정이, 그들 자체로는 과정을 수반하지 않은 그런 궁극적 실재들의 합성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과정과 개체는 서로를 전제로 한다. 이들이 분리되면 모든 의미가 사라진다. 과정(달리 표현하자면 욕구)의 형식은 그에 포함되어 있는 개체들로부터 그 특성을 이끌어 낸다. 그리고 개체들의 특성은 오직 그들은 연루되어 있는 과정에 의거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우주의 본질은 과정 이상의 것이다. 이런 학설과 달리 과정을 결한 실재를 문제삼는 학설은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지닌 어떤 근본적인 측면을 표현한 경우가 아닌 한, 위대한 사상가들의 신념을 대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우주는 이상의 원천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원천의 실제적인 양상은 현재의 경험에 내재하는 것으로서의 신성이다.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감각은, 이상ideal들의 신적인 통일성 속에서 결코 사라짐이 없이 영속하고 있는 과정으로서의 우주에 대한 직관이다.

그러므로 신성과 역사적인 과정 사이에는 본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과정의 형식은 과거로부터 파생되는 것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지 않으며 시대epoch가 무망과 실패의 와중에서 마감되어 갈 때, 과정의 형식은 질서의 새로운 형식들을 수반하고 있는 다른 이상들을

이끌어 내게 된다.

우리는 인간사회의 문명화된 여러 국면들을 특징 지우고 있는 이상들에다 정당성을 부여해 줄 우주 개념을 구성하기 위한 증거로 가치 느낌의 우주와 관계 맺고 있는 선명한 감각 작용을 들어 나타낸다.

현실태의 박동 하나 하나에 제공되는 여건들은 그 박동과의 관련 속에 존재exite하는 것으로의 선행하는 우주전체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건으로서의 이 우주는 그것에 속한 다수의 세부사실로 파악된 것이다. 여기서 다수성은 선행하는 박동들이 다수성이다.

우리의 존재의 밑바닥에는 가치worth에 대한 감각sense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가치란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가치라는 말은 예찬적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자신을 위한 존재, 그 스스로 정당화되는 존재, 그 자신의 특성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체에 대한 감각은 자아와 타자로의 분석을 모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며 이러한 분할은 주로 가치경험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감각에 기초하고 있다. 즉, 총체적인 가치경험은 이 가치경험과 저 가치경험들로 구별된다. 일자one인 다자many에 대한 모호한 감각이 있고, 다자를 포함하고 있는 일자에 대한 모호한 감각이 있다. 게다가 일자에 대한 감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전체로서의 일자에 대한 감각과 다자 가운데 들어 있는 일자에 대한 감각이 그것이다.

'일자'라는 용어는 하나의 '존재자'가 갖는 단일성을 나타낸다. '다자'라는 용어는 이접적인 다양성의 관념을 뜻한다. 이 관념은 '있는 것being'이라는 개념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이다. 이접적인 다양성 속에는 다수의 '있는 것'들이 있다.

'창조성creativity'은 이접 방식의 우주인 '다자'를 연결 방식의 우주인 하나의 현실적 계기로 만드는 궁극적인 원

리이다. '다자'가 복합적인 통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물thing의 본성에 속한다.

우리의 식별은 경험된 세계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세계는 질적인 식별을 위한 제재이다. 문명은 주어진 세계에 대한, 그 질적인 규정을 통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능력은 유한하다. 그래서 이 역전의 과정에 있는 모든 항목이 언제나 우리의 능력밖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은 우리의 직접적인 의식의 영역을 통해 우리에게 우연히 제공된 환경 세계 내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리화는 추상의 이접disjunction속에서 구체적인 실재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이상ideal<sup>®</sup>의 부분적인 성취인 것이다.

(8) 인간의 지성·감정에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 따라서 가장 완전한 상태의 지성 혹은 감정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 예를 들면 인간·사물·성질·상태 등이 발전한 궁극적 최고 형태가 이상이다. 현실적·실제적으로는 있을 수 없으나 실현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행동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현실을 이끌어 갈 힘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상은 전연 비 현실적인 공상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이상은 현실적 행위의 목적이며 그 가능근거可能根據이다.

이상에는 절대적 이상과 상대적 이상이 있다. 절대적 이상은 절대적 완전성을 가진 이상으로서 인간이 거기까지 도달할 수 없는 신·영원·최고선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 절대적 이상도 그것을 인간의 현실적 행위의 목적 내지 근거로 삼을 때에는 상대적 이상과 다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절대적 이상은 완전성이라고보다는 오히려 상대적 이상 자체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볼이 타당하다. 상대적 이상은 현실 속에서 그 실현이 가능한 이상으로서 절대적 이상이 초월적·미래적인 이상이라면 이것은 시간적 이상이다. 그러나 참된 이상은 초월적이면서도 부단히 시간 속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끊임 없는 노력의 목표이면서도 무한한 피안彼岸에 있고 동시에 현실적 행위의 근원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 II-1-3. 자연과 생명

여기서 자연이란 말은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명석 판명한

감각 경험에 의거하여 해석된 것으로서의 세계를 의미한다. 자연은 이른바 인과적(因果的)인 필연의 세계라 볼 때 인간이 의식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며 그 자체의 원인과 필연적 결과로 말미암아 이룩되는 것으로서 제3자는 관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자연이 공간 속에서 운동하고 있는 영속적인 사물들, 즉 물질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런 물질 조각들이 없다면 공간은 텅 빈 채로 있게 될 것이다. 자연에 관한 이와 같은 식의 생각은 분명히 상식적인 관찰과 일치한다.

자연 속의 사건들은 이러한 질적인 규정들의 변화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특히 운동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질 조각들 사이의 관계는 순수하게 공간적인 관계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운동의 중요성은 그것들이 물질적인 사물들이 갖는 상호관계의 유일한 양식을 변화시키는 데서 온다. 인간은 이런 공간적 관계들을 문제삼아 기하학을 발견하게 되고 공간의 기하학적인 특성은 자연이 공간의 독보적인 점유자들인 모든 물질 조각에다 결정적인 관계를 부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동일한 신체를 가지고서 같은 건물 속의 같은 의자에 여러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다. 그 방의 치수는 그 방의 공간적인 관계에 의해 규정되고 부분적으로 변해 가는 색채, 소리, 향기가 있다. 또한 사실상의 주요 변화는 동물 신체의 운동이나 무기적인 가구의 이동에서 비롯된다. 자연에 대한 이와 같은 일반적인 개념 속에는 생명과 정신이라는 그 이상의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

자연 속의 사건들은 대충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신체와 정신을 갖는 인간의 존재이다.

둘째, 유형은 곤충이나 척추동물 등과 같은 온갖 종류의 동물 생명체가 속한다. 사실상 여기에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다양한 동물생명체가 포함된다.

셋째, 유형에는 모든 식물 생명체가 속한다.

넷째, 유형은 생명을 지닌 단세포들이다.

다섯째, 유형은 규모에 있어 동물 신체의 크기에 비견되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큰 모든 무기적 집합체들로 구성된다. 여섯째, 유형은 현대 물리학의 미세한 분석에서 들어 나고 있는 미소한 규모의 사건들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우리는 물리과학이 자연을 활동으로 환원시키고 이와 같은 활동 속에 예시되는 추상적인 수학적 정식들을 발견해 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물음, 즉 우리는 활동의 관념에다 내용을 덧붙일 것인가 하는 물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물음은 오직 자연에 생명을 주입시킴으로서만 답변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생명과 정신성(mentality)을 구별해야 한다. 정신성은 개념적인 경험(conceptual experience)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명 속에 들어 있는 하나의 가변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개념적인 경험이란 온갖 순수한 물리적 실현으로부터 추상되어 있는 이상적 실현의 가능태들(possibilities)을 영입하는 작용을 일컫는 말이다. 개념적 경험의 가장 명백한 사례는 선택지들을 영입하는 작용이다. 생명은 이러한 정신성의 단계 밑에 놓여 있다. 생명은 과거로부터 파생되어 미래를 지향하는 감정 향유이다. 그것은 전에 있었고 지금 있으며 다음에도 있게 될 감정의 향유이다. 이런 벡터적 성격(vector character)은 그와 같은 영입작용의 본질이다.

자연 속에서의 생명의 지위는 현대에 있어 철학의 문제가 되고 있음과 동시에 과학의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상 그것은 인문학과 자연학 및 철학에서 논의되는 체계적 사상의 온갖 줄기가 만나고 있는 중심점이다. 생명의 의미 자체가 문제된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또한 세계 내에서의 그것의 지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본질과 그것의 지위는 똑같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

결국 이러한 결론은 생명이라는 관념을 사상시켜 고찰한

자연에 관한 우리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기에는 아무 것도 산출하지 못하는 활동의 관념이 남아 있을 뿐이다.

### III. 결론

첫째, 창조적 활동 즉 창조성은 개개인의 현실적 존재자들의 통일성에 기인한 공통의 특성일 뿐 만 아니라 그것의 개별화는 곧 개별적인 현실적 존재자이다. 현실적 존재자가 보편적 창조성의 개별화이고 계속적 개별화의 과정을, 한면은 현실적 존재자의 생성 작용인 미시적 과정이며, 다른 측면은 완성된 현실적 존재자로부터 완성되는 현실적 존재자로서의 이행인 거시적 과정이다. 따라서 생성과정 중에 있는 현실적 존재자는 선행하는 자료들의 참신한 통일성 안으로 합생 된다고 볼 수 있다. '과정과 존재의 개념은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는 것이다'.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는 그 합생에 의하여 구체적인 것으로 된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일으키게 하는 원리가 창조성creativity이다. 창조성은 끊임없이 현실적 존재자를 생성시키며 그 자체로서 실재하고 있는 존재개념이 아니라 실재를 특징 지우고 규정하는 보편자인 것이다. 창조성의 원리란 그의 유기체 철학의 모든 국면에 걸쳐 전제되는 일반 원리이며 현실적 존재자들의 한 세대 다음세대도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둘째, 이와 같은 창조적인 행위의 장場 한가운데서 철학이 갖는 특수한 기능은 무엇인가? 여기서 어떤 학설의 주장에 앞서 학설이 갖는 성격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해되어 왔던 어떤 진리가 다른 어떤 진리에 비하여 더욱 다의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담론은 추구 전지全知가 인정되지 않은 하나의 여기 avocation로 볼 수 있다.

직관적 철학은 시나 그림과 유사하다. 이들은 우리가 문명이라 부르는 궁극적인 양식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 양자 모두에는 낱말의 직접적인 의미를 넘어서고 있는 형식 form과의 관련이 존재한다. 시나 그림이 운율 혹은 구도(구성)와 제휴하며면 철학은 패턴과 제휴한다.

셋째, 화이트헤드는 '유기체 철학'이라는 일관된 개념으로 특징 지우고 있으며 <열린 사고>에서는 유기체 철학의 핵심사상과 관점을 비교적 일괄적이고도 비체계적인 술어로 기술하고 있다. 자신의 형이상학을 소개하기 위한 내용이며 형이상학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전문적인 술어나 독특한 개념을 접근시켜 놓았다. 또한 그의 체계적인 사유의 뿌리가 맞닿아 있어 형이상학체계를 단순한 사변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들에게 현실과 경험적 의미를 가져다 준다.

## 참고문헌

1. A.N Whitehead, 〈Modes of Thought〉 The Free Press, A Division of Macmillan Publishing Co. Inc. New York, 1968
2. 위 번역서/ 오영환 · 문창옥 역, 고려원, 1992
3. 안형관, 〈화이트헤드의 이해〉, 이문출판사, 1988
4. 최상균, 〈화이트헤드의 우주론에 있어서 궁극자의 문제〉, 제2회 한국화이트학회발표논문집, 1998
5. 이태호, 〈창조성, 일자, 다자〉와 〈사물, 있는것, 존재자의 관련성〉제2회 한국화이트학회 발표논문집, 1998
6. 엘리자베스클레망 · 샹탈드몽크 · 로렌스한젠-뢰브 · 피에르칸 지음, 이정우 옮김, 철학사전, 동녘, 1996
7. 동아출판사편집국편, 동아프라임영한사전, 동아출판사, 1992
8. 민병일지음, 박학한무지, 한미서관, 1999
9. 세계철학대사전, 고려출판사, 1992
10. 신창석, 중세철학강의, 대구가톨릭대학교, 1999



*Journal  
Korea Society  
of Visual Design  
Forum*

